

2026/9/3

전력기기

김광식 책임연구원
20250021@iprovest.com

Data Check: 미국 수입 데이터 & BPS 규제 시사점

변압기/차단기 수입 데이터 통한 미국 행정부의 'Bulk Power-System 수입금지' 행정명령 영향 분석
중국산 제품 선호도 상승 관측되나, 과거 기록/규제 강화 추세 기인 서방공급망 집중도 추가 상승 전망

미국 수입데이터: 상위 공급선 지위 불변하나, 중국산 소폭 증가 관측

- 변압기: 1H26 미국 변압기 수입액 \$50.5억(+3.8% YoY), 대형변압기(850423) \$21.3억(+6.5% YoY), 배전변압기(850423 외) \$29.2억(+2.0% YoY), 초고압 위주 수입 증가 유지. 주요 수입지역인 멕시코/EU/한국/캐나다/브라질 상위 5개 지역에서 77.2% 수입 발생(도표 7). 중국/ASEAN 수입액은 각각 \$2.4억(+6.1% YoY), \$1.4억(+45.0% YoY)으로 시장 성장률을 상회. 다만 점유율은 중국 4.8%(+0.1%p YoY), ASEAN 2.9%(+0.8%p YoY)로 절대 수준이 여전히 낮음. 양국 합산 점유율은 23년 6.2%에서 1H26 7.7%로 1.5%p 상승.

- 중국산 품목 분석: 대형변압기(850423)는 \$72백만(+55.3% YoY), 점유율 3.4%(+1.1%p YoY)로 급증하며, 1H26 중국산 전체 증가분(\$14백만)을 대형변압기 단독 증가분(\$26백만)으로 설명. 중국산 유입이 대형기에 국한된 현상임을 시사. 유틸리티 발주에서 중국산 선호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실행 속도가 관건인 데이터센터向 증분으로 추정. 중국 TBEA가 북미 AI 데이터센터용 초고압 대용량 변압기 수주 잔고를 27년까지 확보했다고 밝힌 점(26.02)이 직접적 근거. 같은 기간 옥내 설치용 건식 변압기(850434) 시장이 +56.4% YoY로 급팽창한 것도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수요의 강도를 방증.

- 차단기/배전기기: 1H26 배전기기 수입액 \$211.9억(+14.2% YoY), 1kV 이하 배전기기(8536) \$79.5억(+6.8% YoY), 1kV+차단기/결합 배전기기류(8535, 8537) \$132.4억(+19.1% YoY) 기록. 상위 5개 수입지역은 멕시코/EU/ASEAN/중국/캐나다로 79.7%의 점유율 차지(도표 8). 중국 수입액 \$15.1억(-5.6% YoY)으로 감소하였으며, 점유율 7.1%(-1.5%p)로 하락. ASEAN에서 \$16.7억(+7.0% YoY)으로 중국 감소분을 채우는 모습 관측되는데도 우회 수입 고려한 중국/ASEAN 합산 점유율은 15.0%(-2.0%p YoY)로 하락. 한국의 경우 \$8.5억(+23.5% YoY) 기록하며, 시장 대비 높은 성장 실현.

Bulk Power System 규제 영향: 돌아서던 발걸음을 붙잡다

트럼프 정부는 8월 26일 Bulk Power System 관련 행정명령(EO 14420)에 서명. DOE가 120일 내(~26.12.24)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며, 그 전까지 실제로 금지되는 품목은 없음. 대상국은 ITAR 무기금수 24개국, 대상 품목은 69kV 이상 송전급 장비(표 1/2). 신규 거래 금지에 더해 기설치 장비의 연결 해제/제거까지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1기 규제와의 결정적 차이. 유사 선례를 돌아보았을 때, 트럼프 1기의 20년 5월 EO 13920는 국방중요시설(CDF) 공급 전력회사에 한해 69kV 이상 중국산 일부 설비 거래 금지. 21년 1월 16일 적용됐으나 9일 만인 1월 25일 유예되며 법적 구속력은 사실상 부재. 그럼에도 20년 4.3%였던 중국산 대형변압기 점유율 1Q21 0.6%로 급락해 3개 분기 연속 1%를 밑돌았고, 연간으로도 0.7%까지 축소. 18년 수준(2.9%) 회복에는 3년 소요. 리드타임이 긴 기자재 특성상 발주 시점의 정책 불확실성이 조달 의사결정에 반영된 결과. 중국산 비중은 여전히 낮으나, 빅테크의 유틸리티 직간접 투자/Time-to-Power 기조로 중국산 선호도 상승이 수입 데이터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 규제 기조 강화로 빅테크의 서방권 공급망 집중도 재차 높아질 가능성 제시.

[도표 1] USTIC: 전력원 인허가 신청 건수 및 용량

구분	EO 13920 (트럼프 1 기)	EO 14420 (트럼프 2 기)
서명	2020.5.1	2026.8.26
대상국	하위명령에서 중국만 특정	ITAR 무기금수 24 개국
대상장비	69kV 이상 변압기·차단기·리액터·커패시터	+ 인버터·BESS·보호계전·PLC 까지 / 시설치 장비
적용 사업자	국방중요시설(CDF) 공급 전력회사 한정	미국 외 제조 전반 (DOE 평가 후 확정)
실제 구속력	9 일 (2021.1.16 적용 → 1.25 유예)	현재 0 일 (시행규칙 ~12.24 예정)
최종 처리	2021.4.20 금지명령 철회, 5.1 경 비상사태 만료·미연장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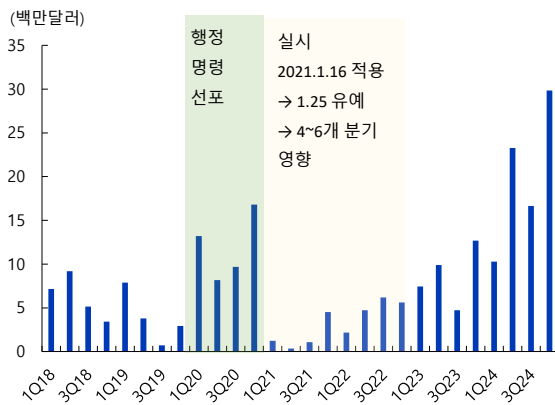
자료: Whitehou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26 년 전력 설비 규제 조치 일람

구분	FCC Covered List	EO 14420	Section 232
근거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IEEPA (국가비상사태)	무역확장법 232 조 (안보 관세)
발효	2026.7.28 작동 중	2026.8.26 서명, DOE 시행규칙 ~12.24 (현재 금지 품목 없음)	2026.4.6 발효 운용 중
대상 품목	통신기능 있는 유틸리티 연계형 인버터	69kV 이상 송전급 변압기·인버터·BESS 차단기·보호계전·PLC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전력망 장비 포함
대상국	원산지 기준 (국적 무관, 전 세계)	ITAR 무기금수 24 개국	전 세계 (국가별 세율 상이)
작동 방식	신규 기기인증 차단 → 실질 판매 불가	DOE 규칙 확정 후 거래 금지	관세 부과 (15%/2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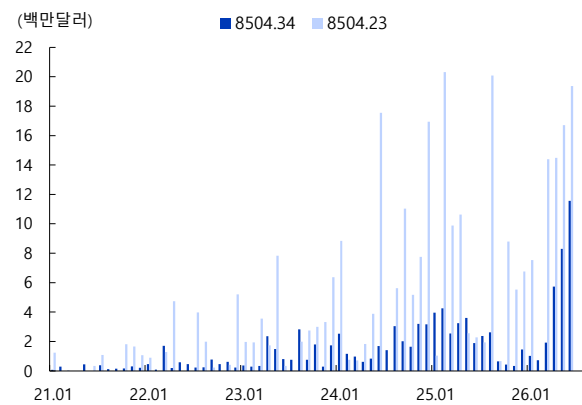
자료: Whitehous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EO 13920 시기, 중국산 대형 변압기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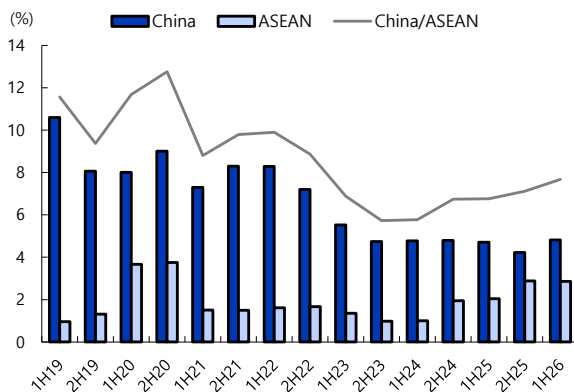
자료: UST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중국산 고압 변압기(850423/850434) 월별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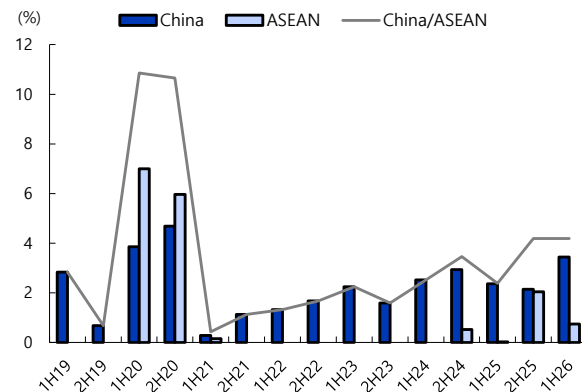
자료: UST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중국/ASEAN 변압기 전체 수입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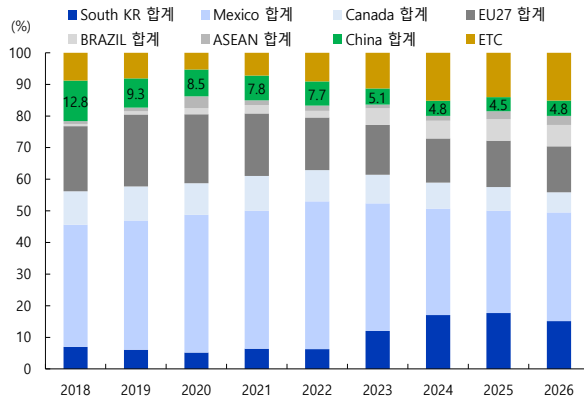
자료: UST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중국/ASEAN 대형 변압기 전체 수입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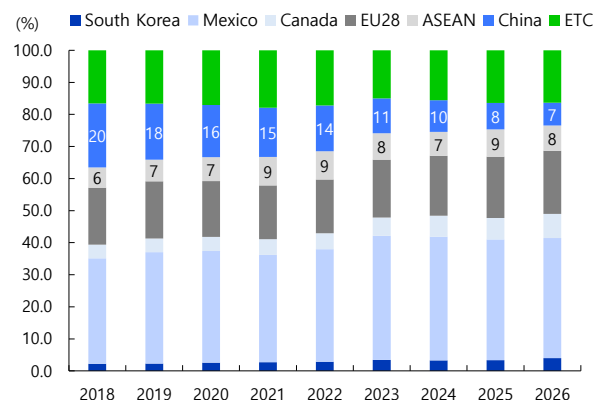
자료: UST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USTIC: 변압기 주요지역별 수입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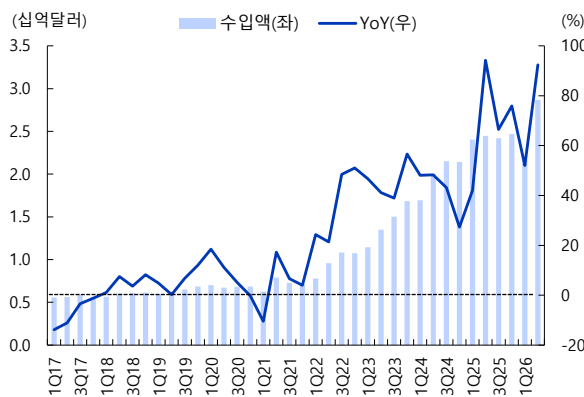
자료: UST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USTIC: 차단기/배전기기 주요지역별 수입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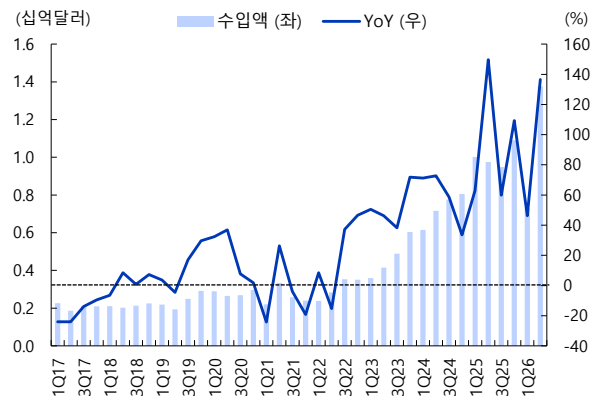
자료: UST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USTIC: 변압기 분기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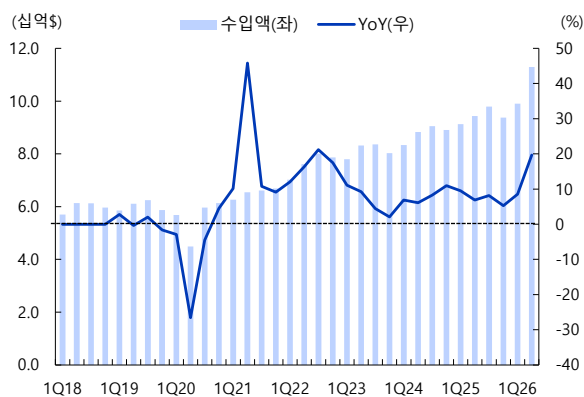
자료: UST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USTIC: 고압 변압기 분기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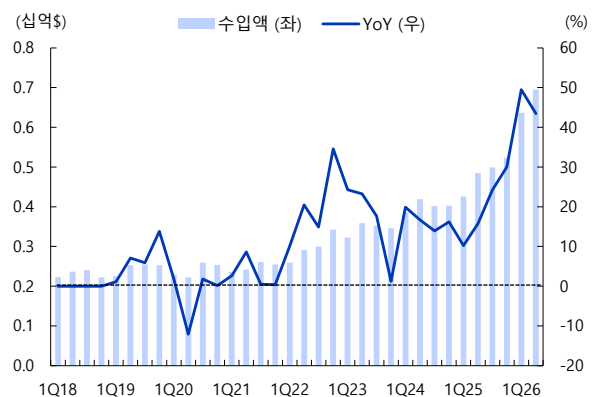
자료: UST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USTIC: 차단기/배전기기류 분기별 수입액



자료: UST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USTIC: 1kV+ 차단기/배전기기류(8535) 분기 수입액



자료: UST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26.6.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94.7	4.6	0.7	0.0%

[업종 투자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거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